

서울市立大學의 發展 方向과 計劃



金 判 永
(서울市立大 學長)

I. 새 時代에 부응하는 教育理念

대학교육을 받은 고급전문인력은 그 국가사회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구성원이요 내일의 지도적 주역됨을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까닭에 대학교육의 이념은 곧 자아 실현을 통한 개인의 완성과 더불어 그 나라의 나아갈 바지표요 이념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날의 우리 나라 대학교육 이념들을 되새겨 보면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형식적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탓으로 실질보다는 명분이 앞섰고, 능력과 실적보다는 학벌과 학력이 존중받는 지극히 비생산적인 교육관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제 우리 대학의 교육이념도 현실적인 바탕 위에서, 보다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것으로 탈바꿈해야 시의에 부합되리라 믿는다.

시립대학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교육이념을 설정하고 이의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려 한다.

1. 폭 넓은 일반 교양과 심오한 학문적 이론 및 정치한 전문 기술을 지닌 지성인을 기른다.

일반 교양교육의 질과 폭을 넓혀서 좁은 안목으로 세상을 내다보는 편협한 지식인의 양성을 지양함은 물론, 이론과 기술을 겸비한 균형있는

지성인을 길러내야 한다. 우리는 자칫 과거의 교육이 이론적인 주지주의 교육에 치우친 나머지 머리만 있을 뿐 가슴과 손, 발이 없는 걸름발이 교육을 해 오지나 않았나 하는 반성을 곧잘 하고는 했다. 기능이 뒤따르지 않는 이론은 공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너무나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힘주어 부르짖던 슬로건은 그것이 바람직한 행동과 생산적인 결과에 연결되지 않는 한 이미 현대적인 명제로서는 그 빛이 바랜 것이라 해야 옳을 것이다. 보다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알아서 행하는 것이 힘」이라는 행동철학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교육 이념이 정립되어야 한다.

2. 성실과 근면을 바탕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건전한 인격을 갖춘 민주 시민을 기른다.

앞에서 이론을 바탕으로 한 행동하는 지성인의 양성을 제일의적인 교육 이념으로 내세웠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필연적으로 성실과 근면이 뒤따라야 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지각있는 민주 시민을 양성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고등교육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하며, 힘들여 일하지 않고도 편하게 살아갈 수 있다거나 하는 따위의 퇴폐적

인 안일한 인생관에서 벗어나도록 교육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인 권리와 의무를 명멸하고 권리와 자유에 따르는 책임을 다할 줄 아는 민주 시민이 되도록 교육되어야 한다. 근면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인생을 경영해 나가면서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으로서 주어질 책무를 다할 수 있는 교대한 인격의 소유자를 기르는데 교육의 이념을 둔다.

3.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의 적응능력과 새 문화의 창조력을 함양하여 수도 서울시와 국가 및 인류 사회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지도자를 기른다.

오늘의 사회는 그 변화의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 이렇듯 급변하는 사회에 뛰어들어 성공적으로 적응해 나갈 수 있고, 또 미래 사회를 창조, 개혁해 나갈 자질과 능력을 길러 주는 것이 대학교육의 으뜸가는 기능 중의 하나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사회의 변천 속도에 맞추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 발 앞서서 바람직한 사회건설과 인간생활 창조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은 그 민족의 새 문화 창달의 기수가 되어야 한다. 우리 교유의 전통 문화를 계승 보존함은 물론, 진전한 선진 외래 문화를 받아들여 새로운 민족 문화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역군으로서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제 나름대로의 구실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 대학은 서울특별시가 경영하는 시립대학으로서 서울지역사회의 발전과 서울시민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데에도 교육의 역점을 두고 있다.

이상에서 열거한 몇 가지 기본적인 교육 이념들이 교수와 학생을 막론하고 시립대학인들의 살아 움직이는 행동강령으로서의 구실을 다했을 때 비로소 이 교육이념은 소담스러운 결실을 기약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II. 市立大學으로서의 特性과 期待役割

서울시립대학은 우리 나라의 다른 대학에 비하여 몇 가지 점에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우리 대학에 기대하는 역할에도 이러한 특성이 은연중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우선 그 첫째의 특성은 대학이 걸어온 역사적인 맥락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서울시립대학의 역사는 1918년, 동양 제일을 자랑하면서 개교된 「경성공립농업학교」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 후 민족 해방의 격동기를 겪고, 1950년 6·25 사변이 일어나던 그 해에 바로 농업고교를 발판으로 「서울농업초급대학」으로 개편되었다가 6년 후인 1956년에 이르러 다시 4년제의 정규대학인 「서울농업대학」으로 승격되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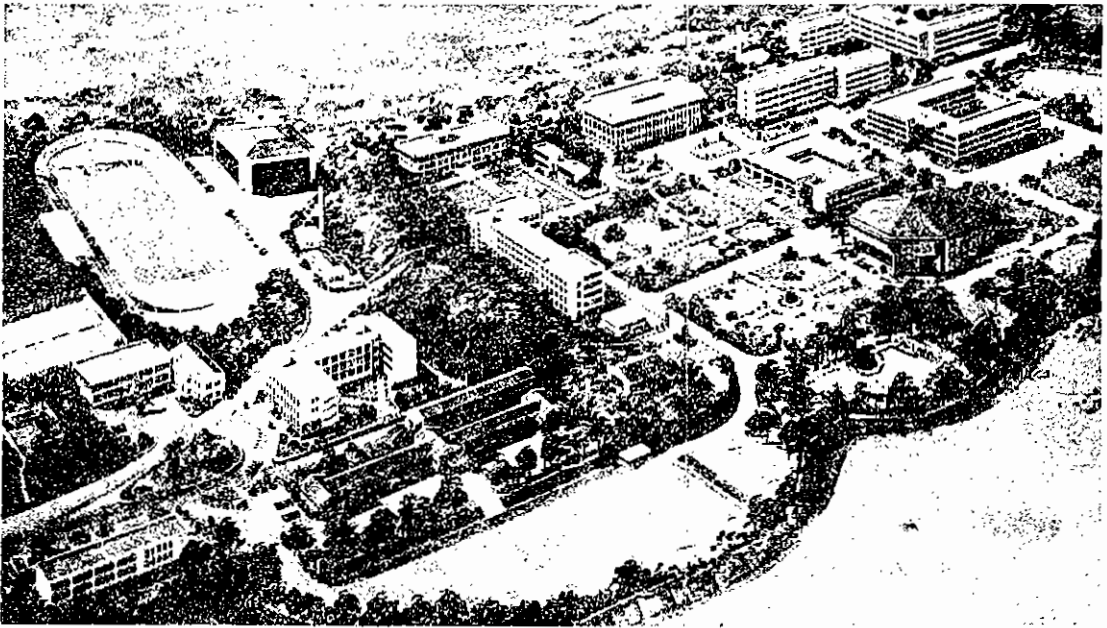
그 당시의 대학 규모는 농과계열 5개 학과에 모집 정원 120명이라는 지극히 영세한 대학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세계적인 대도시로 발전한 서울특별시가 설립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시립대학이 그나마도 대도시 한복판에 농과대학으로 존재한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고심해 오던 차 1974년에 이르러 마침내 「서울산업대학」으로 개편되는 큰 변화가 이루어졌다. 농업계열 학과를 과감히 폐지하고, 도시학 및 이공학 분야 학과로 전면 개편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러나 교수와 학생의 욕구는 이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었고, 교명의 변경과 종합대학으로의 발전적 승격에 대한 집요한 요구가 있던 바, 드디어 1982년 3월부터 우선 교명의 변경이 승인되어 비로소 지금과 같이 「서울시립대학」으로 교쳐 부르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대학의 규모에 있어서도 4개 학부에 주야간 25개 학과로 증설되었고 학생 정원도 4,000명에 달하였으며, 대학원 8개 학과와 도시행정대학원 4개 학과가 설치되어 마침내 명실상부한 시립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상에서 개략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65년이라는 비교적 긴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현대의 산업사회와 미래의 고도 산업, 정보, 과학 시대를 내다보면서 가위 신생대학과 마찬가지로 젊은 꿈과 왕성한 의욕을 안고 종합대학으로의 발전을 염원하며, 줄기차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 본 대학의 특성 중의 하나라 할 수 있겠다.



두번째 특성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직접 설립 운영하는 우리나라 유일의 공립대학이라는 점이다.

우리 나라 대학을 설립별로 대별해 보면 국립과 사립으로 양분된다. 그러나 시립대학은 국립에 준하는 공립대학의 성격을 띠게 됨으로 해서 그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점이라 하겠다.

산업대학으로 개편이 되면서부터 설립자인 서울특별시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시립대학의 발전과 확충을 위하여 최대한의 지원과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당국의 뒷바라지에 힘입어 대학은 대학 나름대로 서울특별시가 필요로 하는 행정, 산업,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 걸친 고급인력의 양성 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적 노력의 일환으로 도시학 분야와 공학 계열을 특성화 학과로 지정하고 시당국과 서울 시민이 우리 대학에 기대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꾸준한 연구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시민대학을 설치하여 직접 시민교육의 일익을 담당하기 위한 계획이 진행중에 있으며, 현재 서울특별시 행정 요원들을 본 대학의 「외국어 어학원」에 입

소시켜 밀도 높은 외국어 연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부설 연구기관인 「수도권연구소」에서는 수도 서울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학구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하여 실효성있는 대책을 강구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 새마을 연구소」에서는 대도시의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이론과 실지 조사사업을 통하여 서울시의 새마을 운동을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다.

Ⅲ. 새 章을 여는 意志와 構想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서울시립대학은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새 장을 여는 의지와 구상으로 교육현장의 열기를 더해 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은 급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산업구조와 급변하는 사회적 수요에 따라 고급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으며, 80년대에 이르러 이에 부응하는 정부의 대학정책 지원 증원정책에 의하여 취해진 대학 확장정책에 따라 많은 대학들이 양적인 팽창을 가져왔다.

이러한 전반적인 추세에 따라 시립대학도 중

합대학으로서 성격을 갖추어 그 기초 작업을 서둘러 나가고 있으나 정부의 수도 서울에 대한 인구 억제정책으로 인하여 종합대학 설치 기준을 충족시킬 만큼의 정원 증가가 실현될 조짐이 지금 현재로서는 내다보이지 않는 형편인 까닭에 주어진 현재의 여건 속에서 소수 정예의 고급인력양성을 지향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종합대학으로의 발전을 전제로 하여 시립대학이 중점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교육의 방향과 발전 계획을 다음에 간추려 보기로 한다.

1. 우수한 교수요원의 확보와 연구

대학의 양적인 팽창으로 인하여 교수요원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우수한 교수요원의 확보 문제는 현재 한국의 대학들이 안고 있는 공통적인 난점이라 하겠다. 특히 국가의 법정 보수 규정의 제약을 받아야 하는 시립대학은 급여면에서 사립대학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이러한 난점은 극복하기 위하여 서울시가 지급하는 연구비를 위시한 각종 연구지원비를 증액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충실한 학문 연구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의 확충과 부설 연구소의 활성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정기적인 교수 연수회는 물론 학문의 전문 분야별, 학과별의 연수 모임을 수시로 개최하여 학문적인 정보 교환과 교수 자질의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각종 학술세미나 또는 학술연구발표회 등을 학내에 유치하여 교수들의 연구 의욕을 북돋우며, 아울러 학회 활동은 물론 연구 결과의 보고서나 저서의 간행을 적극 권장하여 자신이 이룩한 학문적 성과를 확인하고 인정받도록 지원할 것이다.

2. 자율적 면학 분위기의 조성

과거의 우리 나라 대학은 어렵게 들어와서 쉽게 나가는 안일한 태성에 빠져 있었음을 우리는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병폐를 불식하기 위하여 이미 1981학년도부터 학사(學事) 계획표와 강의 시간표의 조기 작성 배부, 개강과 종강의 기간 엄수, 강의 계획서의 작성과 활용, 휴강 결강의 방지, 수시 시험제도의 도입, 성적 평가의 엄정과 학점 관리의 철저, 효율적

인 과제물의 부과, 각종 행사의 수업시간 외 실시 등의 탄력성 있는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자율적인 면학 분위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그 성과가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대학에 있어서 전혀 새로운 것이 없는 이러한 교육적 노력들이 새삼스럽게 논의되는 소치는 가장 당연한 사실들이 우리 나라에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데서 빚어진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3. 예방지도의 원리에 입각한 적극적인 학생지도

대학에 있어서의 학생지도는 대개의 경우 소극적인 사후지도로 일관되어 왔다. 대학생의 현실 참여의 열기가 그 도를 지나쳐 사회적 불안조성과 국가 안보적 차원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경지에 이르도록 학원 소요의 악순환이 되풀이되었고, 그 때마다 문제가 발생한 연후에야 사태 수습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 왔으며, 관련 학생들의 처리에 급급했던 것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할 뿐 근본적으로 문제의 요인을 제거하는 적극적인 학생지도의 방향과는 초점이 맞지 않았던 것이다. 학생지도의 요체는 피상적인 훈육이나 인위적인 제도의 강화만으로는 그 실효를 기대할 수 없으며 모름지기 교수와 학생간의 격의없는 만남을 통하여 이룩되는 정감의 교류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인간적인 접촉에 의하여 학생들에게 자기 수양의 계기를 마련해 줌으로써 조국이 처해 있는 냉엄한 현실을 정확하게 자각하도록 일깨워 주며 진정 나라를 사랑하고 겨레를 위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막중한 생활지도의 기능을 맡아 수행하는 우리 대학의 「학생생활연구소」는 종래의 형식적인 지도 활동의 범주를 벗어나 직접 학생들의 생활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며, 폭 넓은 대화를 통하여 상호 협동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는 적극적이면서도 역동적인 생활지도 활동에 임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즐겁고 보람있는 대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서는 면학 시설도 중요하고, 조용한 휴식과 오락 및 스포오즈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의 조성도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간편하고 경제적인 음식과 생활용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시설도 갖추어져야 한다.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2,100평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3층의 「대학회관」이 금년 8월에 준공되어 캠퍼스 생활의 센터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줄 믿는다.

4. 학문 발전에 부응하는 교육과정의 개편

교육과정은 교육의 기본설계도이다. 교육과정이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서 그 대학의 교육 방향이 결정되어 진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예로 보아 대학이 교육과정 개편에 임하는 태도는 매우 소극적이었던 사실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시립대학에서는 이러한 타성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상설 기구로 「교육과정 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합리적인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5.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도서실·자료실의 설치

우리 나라의 대학교육이 시급히 탈피해야 할 또 하나의 폐단은 지나치게 강의실 위주의 교육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강의가 대학교육의 주종을 이루고 있음을 부정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 다만 도서관에서 실험·실습실에서, 연구실에서, 자료실에서 강의 내용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일련의 보충 학습이 수반되지 않으면 강의실 교육은 공허하기 그지없다는 사실을 지적할 따름이다.

시립대학은 1,200명 규모의 「중앙도서관」을 비롯하여, 4개 학부에 각각 20명 규모의 「도서실」이 강의실과 인접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다. 이 도서실에는 주로 각종 사전류와 기본적 전문 참고 도서 및 교과서를 비치하여 학생들이 수시로 자유롭게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으며, 장차에는 이 도서실을 「전문별 도서관」으로 확장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다.

6. 미래 산업사회의 기능인 양성을 위한 C.C.T. 과정 개설

고도로 발달한 현대사회와 다가올 미래 과학, 정보 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응해 나가려면 유능한 기능을 지닌 지성인을 양성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시립대학에서는 C.C.T. 과정을 개설하여 특별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여기서 C₁은 Conversation, C₂는 Computer, T는 Typing을 일컫는 약자이다. 이 교육 과정에 이용될 시설로는 「외국어 어학원」 「어학실습실」 「시청자교육실」 「전자계산소」 「국·영문 타자실」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기자재의 설비에 있어서도 현재의 학생 규모로는 별 불편 없이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갖추어져 있다.

이러한 특별 과정은 물론, 모든 교수활동에 필요한 학습자료의 제작과 시청자교육 기계의 공급·조작을 위하여 거의 완벽한 「시청자교육원」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교육원이 학습방법 개선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7. 학원 공원화를 위한 캠퍼스환경 조성

현대인들의 정서는 무척이나 배마르고 거칠어져 있다. 특히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이러한 정서 실조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시멘트와 아스팔트 공해는 대학 캠퍼스라고 해서 결코 예외는 아니다. 까닭에 대학의 캠퍼스 환경을 아름다운 공원처럼 다듬고 가꾸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교육적 노력 중의 일부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내가 시립대학에 부임하여 느낀 첫 인상은 캠퍼스가 훌륭한 자연 환경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실로 60여년의 긴 세월 동안 그것이 계획적으로 다듬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을 연차적으로 다듬고 가꾸어 학원 전체를 공원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정서순화에 이바지함은 물론, 서울 시민의 산책 장소로 개방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따라서 대자연이 배풀어 준 이 아름다운 환경을 길이길이 가꾸고 보존해 나가는 것도 우리 시립대학의 교육적 관심사 중의 하나임을 다짐해 두는 바이다. *